초등 입학식 "꿈과 희망을 날려요" 화순제일초등학교는 2일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새내기들과 6학년 선배들이 함께하는 '꿈과 희망을 담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또 광주 숭일고에서는 '입학생 전원 장미꽃 증정식', 전대사대부고에서는 '신입생 환영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이색 입학식이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되로 주고 말로 받는' 韓電

전신주 점용료 14억 내고 사용료 110억 징수 '8배 장사'

광주시, 점용료 인상 추진

한국전력 광주전남사업본부가 광주지역 내 전신주 등을 사용하는 통신업체들에게 110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정작 광주시에는 도로점용료로 8분의 1 정도만 납부하고 있어 시가 점용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광주시는 "전신주나 변압기 등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나 지중화 작업은 지지부진하며, 한국전력 측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얻고 있어 점용료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광주전남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전신주는 8만1천419기, 지중설비는 전력구(1천302m), 관로(58만264m), 기타 설비(6천248대) 등이 설치돼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신주 설치에 따른 도로 점용료로 4천742만6천원, 설비 점용료로 13억4천685만원을 광주시에 납부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전신주에 통신업체의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난해 모두 116억8천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국전력은 전신주 1기당 광주시에 연간 582.5원을 점용료로 내고, 통신업체들로부터는 1만7천520원을 사용료를 받은 셈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신주 사용료는 전신주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신설비 증가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며 "전신주 사용료와 도로 점용료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점용료가 과다 인상될 경우 사용료 및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전신주의 유지·보수 비용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해야하며, 도로 점용을 통해 통신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상 도로점용료의 감면규정 삭제 또는 요율 조정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국전력 측이 도로 점용료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토해양부에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심 빈 집 급증

광주 동구 2년새 2배 넘어

범죄 온상 우려

광주 도심 내 빈 집이 최근 2년 사이 자치구별로 최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빈 집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심 흉물로 전락해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지난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지역 내 공가·폐가를 일제 조사한 결과 그 수치가 1.5배~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동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구는 134곳에서 315곳으로 무려 235% 이상 급증했다. 서구는 108동에서 167곳으로, 남구 역시 200여 곳에서 350곳으로 각각 늘었다.

광주시는 이 같이 도심 내 빈 집이 급증하면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8년부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빈 집 철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복잡한 소유 및 이해관계로 인해 정작 철거에 이르는 빈 집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수 없어 공터로 남게 되는 등 철거 뒤에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철거 이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도심 내 빈 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의 가격이 갈수록 하락하는데다,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면서 주택을 방치한 채 아파트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도심 내 빈 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승객 등 212명 탄 한·일 여객선 '코비호'

표류 10시간만에 부산 도착

승객 205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일본을 출발, 부산으로 향하던 국제 여객선 코비호(160t)가 기관고장을 일으킨 지 10시간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한·일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코비호가 지난 1일 오후 6시15분께 부산 태종대 동방 8.6 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15분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항을 출발한 이 여객선은 사고 해역에서 갑자기 자체 동력을 잃어 높은 파도에 떠밀리며 2시간 이상 표류했다.

부산해경은 사고 여객선의 선장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코비호는 2008년에도 무리하게 운항하다 일본 쓰시마 인근 해상에서 25시간 동안 표류한 적이 있고 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해 승객 7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7시 00분
해짐 18시 29분
달뜸 21시 40분
달짐 08시 23분

출근길 옷 두툼하게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 주	차차흐려져 비	-2/12℃
목 포	차차흐려져 비	2/11℃
여 수	차차흐려져 비	3/9℃
완 도	차차흐려져 비	2/11℃
구 례	차차흐려져 비	0/11℃
해 남	차차흐려져 비	0/11℃
장 흥	차차흐려져 비	0/11℃
고 흥	차차흐려져 비	1/11℃
순 천	차차흐려져 비	2/11℃
영 광	차차흐려져 비	0/12℃
진 도	차차흐려져 비	1/11℃
전 주	차차흐려져 비	−1/12℃
남 원	차차흐려져 비	−1/10℃
흑산도	차차흐려져 비	3/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3.0m

	밀물	썰물
목포	03:53 16:08	09:02 21:19
여수	10:49 23:15	04:35 16: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날 씨						
최저/최고	7/11	7/14	6/10	4/9	1/8	0/7

영하 2도 뚝 '반짝추위'

광주·전남 밤부터 내일까지 비

3일 광주·전남지역은 반짝 추위가 예상된다. 또 이날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다음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2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5~10㎜.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일교차가 크겠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산 지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4일까지 이어지고 지역별 강우량의 차이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4일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지역 20~50㎜, 광주와 그 밖의 전남지역은 10~30㎜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5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주말이자 경칩인 6일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전띠 미착용·운전중 통화 … 적발 즉시 범칙금

경찰청, 7월부터

오는 7월부터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하게 교통질서를 위반하더라도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선진교통질서와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6월 말까지는 이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검, 이메일 압수·수색·검증 기록 5년간 보존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토톡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집행 사건 등에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통보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메신저 등),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무선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남구 승촌마을 전국 최초

도시형 저탄소 녹색마을

남구 승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도시형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 승촌마을에는 앞으로 3년 간 국비 등 55억원이 투입돼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자연력을 이용해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생산·운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마을에는 모두 25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유기농 및 비닐하우스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